



안정적 원자력 사업 기반 구축에 최선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 사업 국민 이해 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맞는 신사년(辛巳年) 새해는 여느 해와 남다르다.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는 올해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이 분할되는 등 전력 시장에서도 경쟁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원자력 사업에 대한 홍보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비록 국가적으로는 제2차 금융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과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등으로 온국민이 벽찬 감격을 느낀 한 해였으며, 우리 원자력계도 신고리 원전 건설 부지에 대한 정부의 지정 고시가 순조롭게 진행돼 향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 뜻깊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확보에 최선

그러나 아직도 반핵 단체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건설 부지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펼쳐질 경쟁적인 전력 시장에서 원자력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난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인 (주)TN소프레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84.4%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주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대해서는 단 10.9%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확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서 이러한 일반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의 해결을 통해서만 진정한 '원자력 문화'의 꽃이 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일반 국민의 원자력 시설에 대해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주력하여, 원자력 산업계의 숙원 사업인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홍보 사업의 역량을 집결해 나가는 한편, 신규 원전 예정 부지 관련 지역 홍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홍보 등 원자력 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원자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 고자 한다.

2001년도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자력 사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가변적인 요소가 많이 예상되고 있다. 독일 및 대만의 원전 사업 포기 발언에 따른 국제적 분위기에 편승한 반핵 단체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으며, 자칫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과 12대 개혁 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전력 산업 구조 개편, KEDO 사업의 본격화 등은 환경 친화적인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등 원자력 홍보에 긍정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총력적인 홍보 체제를 확립해 나갈으로써 21세기 원자력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DB 구축으로 원자력정보센터 역할 강화

먼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매월 발행하는 월간지 <원자력문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총력적인 홍보 체제를 확립해 나갈으로써 21세기 원자력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1)의 혁신적인 지면 개조를 통해 일반 국민이 원자력에 대해 친숙한 이미지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단행본·동화·만화 등을 통해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원자력 정보 DB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원자력에 관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원자력정보센터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계획이다.

또 토론회·세미나 등 이벤트성 문화 행사를 시의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적기에 개최함으로써, 원자력 현안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원자력 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국원자력문화재단과 원자력 홍보 분야에 관한 협력

협정서를 체결한 프랑스의 원자력청과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준 높은 원자력 선진국의 국민 이해 증진 노력에 대해서도 국내에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원자력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관련 기관의 홍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원자력 홍보 전문가 연수 강좌도 참여대상의 확대, 강사진의 강화 등을 통해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에 대한 왜곡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올바르게 제고하는 방법은 TV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파악하고, 일반 국민이 원자력 전문가에게서 원자력의 진실된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원자력 전문 인력을 강사로 위촉하여 원자력에 대한 강의나 설명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이를 요청하는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파견하고, 나아가 여론 주도층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가 직접 원전을 방문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원전 시찰 사업을 더욱 다양하게 편성하여 원하는 모든 국민이 원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차세대 교육 사업 추진

특히 자라나는 차세대가 원자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원자력 사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학생 및 교사 등 차세대와 관련된 홍보 활동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원자력 작문 및 논문·모집 사업 등 차세대가 원자력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며,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긍지를 가지고 학문에 임할 수 있도록 원자력 전공 우수 학생 지원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교육 과정에 원자력에 관한 내용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 문화' 구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국민의 이



2001년을 맞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 생활 안정에 없어서는 안될 원자력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 기반 확충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그 동안 지역 사회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 주민 노래 자랑을 비롯한 각종 지역 문화 행사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각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원자력문화진흥회」와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과의 유대 관계도 강화해 지역에서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업이다. 매년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시행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관계로 원전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혜택이 오히려 전

달되고 있지 못한 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례를 모은 팸플릿을 비롯하여, 신문·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지원 사업 내용 소개 및 각종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활발히 할 예정이다.

21세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2001년을 맞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 생활 안정에 없어서는 안될 원자력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 기반 확충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임직원 모두는 새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21세기 원자력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